

가정폭력 여성들을 위한 지지적 집단 프로그램에서의 경험

김 선 아* · 현 명 선**

I. 서 론

I. 연구의 필요성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 폭력과 관련하여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그 피해자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성폭력으로 인한 심각성을 평가해 본다면 여성에 대한 성적인 혹은 신체적인 하대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야 하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정폭력을 베푸자 복리(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가족간에 발생하는 부녀 및 학대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가정 폭력은 뺨때리기, 밀기, 물걸년지기, 구타, 발로 차기, 혹은 무기를 사용하여 폭력을 행하는 행위 등 부부사이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정의된다.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에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Houskamp와 Foy(1991)는 극도의 고통스러운 스트레스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에서 나타내는 증상과 유사한 비정상적인 반응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감각, 자각, 인지, 대인관계, 생리, 행동

영역 등에서 정상적인 반응이 붕괴되는 변화나 장애 등이 있다. 꿈이나 환청을 통해서 과로운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거나, 비슷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과도한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게 된다. 또한 대인관계를 피하고 갈등이나 정서의 표현이 매우 무뎌지며, 미래를 예측하기 못한다. 일상적인 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수면에 장애가 있고, 문도감을 급작스럽게 표현하기도 하면서 불안정해 보인다.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사소한 일에 부적절하게 과도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ttendorf & Tolleru, 1997). 또한 가정폭력을 자녀들에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Roberts와 Petretic-Jackson (1998)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어머니가 매맞는 장면을 목격한 아동의 75% 가 문제행동을 나타내거나 사회적인 문제아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단성적으로 폭력행동을 나타내는 10대 청소년들 중에서 20~40%의 대상자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은 피해 여성 본인과 가정뿐 아니라 사회전체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이며 사회적인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Hattendorf와 Tolleru(1997)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신체적인 고통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아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과 심리적인 상처 때문에 도움 받기를 원하지만 이 차적으로 또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지적한바 있다. 즉 의료인이나 전문가들이 피해여성에 대한 천천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많고 폭력 피해 여성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상처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데 점이다. 그러므로 치료기관 및 상담시설, 응급실 등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이나 사회복지 담당자들은 폭력 피해 여성들의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인 면에서의 후유증 등에 대한 강차한 파악이 요구되며 그들의 경험과 삶에 대해서 공감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는 여성들을 위한 치료적인 프로그램이 거의 개발되어있지 못한 실정이고 이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지지적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사회와 임상 실무 현장에서 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나 치료 전략들을 만들기위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찰 제공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또한 심층면담을 통한 피해여성의 경험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파악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해여성을 들보는 전문인에게 생생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컴퓨터에 암소하여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지게 되는 경험은 어떠한가?

II. 문헌 고찰

가정폭력으로 인한 건강상태의 변화 및 후유증은 정신 보건 영역에서 뿐 아니라 일차 건강관리체계 및 건강과 관계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다(Campbell, Kub & Rose, 1996). 지난 20여년 동안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를 보면 주로 여성들의 신체적인 건강문제와 치료형태, 입원일수, 응급실 이용실태 등을 다루고 있다(Houskamp & Foy, 1991). 우리 나라에서 보고된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는 일차적으로는 폭력반생의 빈도 및 원인과 유형에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에서 1,171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부부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남편으로부터의 폭력 경험은 17.2%, 심한 폭력 경험은 7.3%로 나타났다. 김재엽(1997)이 전국의 기혼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31.4%의 여성이 가정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이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된 연구는 대부분 신체적인 피해를 중점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하는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구타양상에 대하여 조사한 김창일(1985)의 연구에서는 칼이나 부기, 기타 치명적인 무기로 찔림을 당하거나 강타를 당한 경우가 10%, 무기로 죽이겠다는 힘박을 받은 경우가 22%, 무차별로 때려 누혀진 경우가 42%, 물건으로 때리거나 때린다고 힘박당한 경우가 10%, 주먹질, 발길질을 당한 경우가 16%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의 전화'(1996)가 운영하고 있는 쉼터 이용자 9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의 폭력 양상을 보면 '온몸에 망이 들었다'가 71%, '찔리거나 찢어진 상처를 입은 경우'가 41%, '관절이 탈구되었다'가 23%, '기타 뼈 골절'이 15%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경험 한 폭력 중 가장 심한 양태를 보면 '마구 두들기거나 목조르기'가 46.8%, '칼이나 홍기로 위협' 19.1%, '물건으로 때리기' 8.1%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칼이나 홍기로 찌르기', '웃 빙기고 가두기', '물 친던 치기 숫'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여성들의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여성의 신체적인 건강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종합병원의 응급실이나 외래 그리고 일차 의료기관에 통증, 골절, 안면외상, 인대 손상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방문자를 가운데 가정폭력이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Campbell & Lewandowski, 1997). 또한 폭력으로 인한 신경계의 손상으로 청력과 시력에 문제가 있고, 집중관련이나 만성 두통에 시달리고 있으나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되고 있다(Eby, Campbell, Sullivan, & Davidson, 1995).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정신적인 후유증에 관해 조사한 Gleason(1993) 연구에서는 배당는 여성들 집단에서 우울증의 발병 비율이 매우 높다고 보고하였다. Campbell과 Lewandowski(1997)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문현들을 검토한 결과 일반 여성 집단에 비하여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유의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여성들을 대상으로 폭력의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으며,

50명의 가정 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광일(198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상후의 스트레스 장애가 80%, 우울증이 10%, 정신신체장애가 4%, 적응장애가 2%로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보고된 연구결과를 보면 일차 간강 관리기관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들은 특히 피해여성들의 우울 및 불안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Campbell, Kub & Rose, 1996; Houskamp & Foy, 1991).

가족 폭력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간호학 분야에서 발표된 연구는 한영란(1996)이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경험한 14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아내 구타'가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나며 이것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관한 과정을 근거이론의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이 연구 결과 구타당하는 아내들은 '개인적인 능력이' 많을수록 그리고 개별적인 지지와 공동체 지지의 '방해막이'가 강할수록 남편의 구타에 대해 '직면하기'와 '적극적 대응'의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맞는 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설은 후식처로서의 물리적인 방해막이가 될 뿐 아니라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 할 수 있으며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이 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어서 본인들의 상황을 올바르게 직면할 수 있도록 '심리적 의사소통 효과'와 '집단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이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신체적, 정신적, 가정 및 사회적인 면 등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시작에서 그들의 경험을 심층적이고 보괄적으로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중재전략이나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변화하는 경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남편으로부터 매맞는 여성들을 위해 서울 지역의 일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지지적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이 가지게 되는 경험들을 알아보기 위한 질적인 연구이다. 본 연구 대상자는 이 시설에 1998년 9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입소한 35명의 여성들 중에서 좀 더 지속적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표 1). 이 시설은 가장 집 구조의 공간을 마련하여 20여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하고 두 명의 임력이 교대로 24시간 계속 상주하고 있다. 이 시설에 입소한 여성들은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나이(만)	결혼기간(만)	자녀수	학력	남편 직업	남편 학력	폭력행동기간	폭력행동간격 (1년동안)
34	17	2	중졸	자영업	중졸	4~5년	5회
64	42	5	국졸	무직	고졸	5~6년	3회
29	3	2	내줄	자영업	대졸	3년	월 3~4회
45	24	2	국졸	공무원	중졸	20년	10회
37	11	2	고졸	건축업	고졸	10년	12회
33	10	2	고졸	상업	고졸	10년	2회
36	3	1	고졸	자영업	고졸	3년	월 수 차례
29	8	1	고졸	아재 행상	고졸	6년	15회
38	14	2	중졸	일용근로자	고졸	2년	1회
33	5	1	고졸	세차원	고졸	3년	12회
41	12	1	중졸	-	중졸	11년	3~4회
33	9	2	고졸	회사원(칠강)	고졸	9년	2회
41	16	1	국졸	무직	중졸	16년	3회
41	21	6	국졸	건축미장	국졸	21년	주 2회
33	5	2	대졸	무직	대졸	1	2~3회

어부를 수 있다.

2. 집단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본 프로그램의 초반부는 각각의 대상자들이 받은 가정폭력 경험의 특징과 폭력의 결과로 인한 최근의 심리 가능 상태를 파악하여 지지적인 상담을 제공하면서 대상자들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때 치료자는 대상자의 구타당한 경험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중반부에서는 대상자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회복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후반부에서는 대상자들 스스로가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survivor)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초점을 두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매회 프로그램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제에 따라 진행되었다.

- 1) 자신에 대한 이해(결혼전)
- 2) 자신에 대한 이해(결혼후)
- 3) 배우자에 대한 이해
- 4) 결혼생활에서의 문제발견
- 5) 마음의 상처
- 6) 스트레스 해결방법 :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략
- 7) 미래에 대한 계획 :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 8) 삶에 대한 희망

프로그램의 운영은 매회 입소와 퇴소하는 날짜에 따라 대상자가 바뀔 수 있으므로 각각의 주제는 매회 끝나면서 마무리하였으며, 모든 대상자는 시작한 시기와 관계없이 8개의 주제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매회 연구자 한명이 집단프로그램의 주 치료자로 참여하였고 쉼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관 사회복지사 한명이 보조 치료자로 참여하였다. 매회 약 60분에서 90분이 소요되었고 평균 3~4명의 대상자들이 참여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본 연구자가 지지적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대상자들이 표현하고 나누었던 대화들을 기록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절차는 Strauss & Corbin(1990)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의 절차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분석 첫 단계로 대상자들

이 집단 프로그램에서 표현했던 사건/행위/상호작용 내용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고 다른 자료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개념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마음의 상처', '분노', '벗어나고 싶음' 등 31개의 개념이 나왔다. 이 개념들은 대상자들이 경험한 시기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시 시기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IV.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들이 컴퓨터에 들어와서 집단 위기 중재 프로그램을 받고 난 후 퇴소하기까지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크게 결혼생활 경험, 쉼터 생활 경험, 집단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변화에 따라 경험과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결혼생활의 경험

대상자들이 집단 프로그램에서 표현하는 자신의 결혼생활 경험을 자신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시댁식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 자신에 대한 경험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남편이 자신의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주었으며, 남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모멸감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등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으며, 남편에 대해서 화가 치밀며 가슴이 울 것 치미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으며, 그 동안 참고 산 것에 대한 악울함과 허허벌판에 혼자 살고 있는 듯한 막막함을 호소하였으며 이제까지의 삶에 지쳤으니 남편으로부터 항상 주눅들고 위축되어 있다고 표현하였다. 이상과 같이 결혼생활에서 자신에 대해 갖는 경험을 마음의 상처, 분노, 벗어나고 싶음, 악울함, 막막함, 지침, 위축됨 등으로 개념화하였다(표 2).

2) 배우자에 대한 경험

대상자들은 남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남편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 매우 나약한 사람이라고 하였고, 남편에 대해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말하여 남편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대부분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남편이 자신을 이용한다는 느낌이 들거나 자신을

〈표 2〉 '자신에 대한 경험' 개념화

개념	경험
마음의 상처	남편은 내 자존심에 많이 상처를 주었어요. 남편의 주연, 죽행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요. 남편의 죽행, 주연이 잊혀지지 않음 폭력에 대한 모멸감을 안 잊어버릴 것 같다. 도저히 마음의 상처가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분노	남편에 대해서 화가 치민다. 책임을 왜 나한테 지우도록 하는가. 나를 죄인처럼 생각한다. 너무 화가 나서 집에 끗 들어가겠음 남편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 마음의 평정 유지하려고 하다가도 기금 울면서 미는 느낌이 든다. 맞은 것에 대한 화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명들은 상처를 보면서...
벗어나고 싶음	더 이상 짐승처럼 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맞고 살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억울함	억울한 마음이 든다. 부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으로 살아온 것 같다. 그 동안 살아온 생활이 억울하다. 그 동안 최대한 참고 살았다고 생각한다.
막막함	지금 불안하고 혼조하다. 허허벌판에 혼자 살고 있는 느낌이다.
(삶에) 지쳤	결혼생활에 지쳤다. 남편에 맞추고 자신을 죽이는 삶에 지쳤다.
위축됨	원래 나는 자기주장이 강한 편이었는데 결혼생활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항상 주눅들고 부정적인 판단으로 항상 위축되어 있다. 원래 나는 책임감 있게 잘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로비트 인생 같다. 항상 너무 남편에게 너무 구속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여 남편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었으며,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며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역할을 모른다고 말하여 남편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결혼생활에서 남편에 대해서 갖는 경험은 동정심, 불신, 무능함, 불인정 등으로 개념화하였다(표 3).

3) 자녀에 대한 경험

대상자들에게 있어서 자녀에 대한 경험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들은 자신이 집을 나오면 자식들이 고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식을 위해 참고 살았다고 하였다. 임신 때문에 헤이지지 못했다고 떨하여 자녀가 대상자의

〈표 3〉 '배우자에 대한 경험' 개념화

개념	경험
통정심	남편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다. 남편에 대해 불쌍한 마음이 든다. 남편은 매우 나약한 사람이다.
불신	남편이 나를 이용한다는 느낌이 든다. 남편에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무능함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능하다. 남편은 시대 능력에 너무 의존한다. 남편은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역할을 모른다. 남편은 성실성이 부족하다.
불인정	내가 친정 식구들 앞에서 남편을 인정 안 해 온 것 같다. 남편에 대해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 남편에 대해 존경심이 없으니 잘해주지 못했다.

결혼을 지탱시켜주는 요소로서의 의미가 있었다. 또한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희망으로 생각하는 등 자녀를 희망의 대상으로 생각하였으며, 가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자녀에게 잘 해 주고 싶다고 말하는 등 자녀를 애정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자녀들 때문에 합의이혼이 어렵다고 말하는 등 자녀가 그들이 남편으로부터의 독립을 방해하는 요소로서의 의미가 있었다. 또한 아이가 그 동안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말하면서 남편 폭력의 피해자로서의 자녀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녀가 자신과 같은 경험을 갖게 되어 세 2의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서의 자녀에 대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결혼 생활에서 자녀에 대한 경험을 결론

생활의 지탱, 희망의 대상, 애정 대상, 남편으로부터의 독립을 방해함, 남편 폭력의 피해자, 제 2의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한 걱정 등으로 개념화하였다(표 4)。

4) 시댁에 대한 경험

대상자들은 시댁에 대하여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시댁 칙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자신과 시댁 칙구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시댁과 너무 가깝게 생활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매일 간섭받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여 그들에게 있어서 시댁은 갈등의 원인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어머니와 아들 관계가 분리가 안되었고 남편이 시어머니의 희생물 같다고 말하

〈표 4〉 ‘자녀에 대한 경험’ 개념화

개념	경험
결혼 생활의 지탱	아이 때문에 참았다. 자식을 위해 참고 살았다. 5남매 때문에 내가 나오면 아이들 고아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참고 살았다. 임신 때문에 해어지지 못했다.
희망의 대상	남편 만나 인생 망가졌으니 자식과 더불어 살 수 있다고 본다.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희망이다. 방 한 칸 있으면 딸 머리고 살고 싶다.
애정 대상	가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고 자녀에게 잘해 주고 싶다. 아이에게 마음으로 생각한 만큼 절 못했다. 시간 나는 대로 아이들 바리고 빡여 다니고 싶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이들한테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꿉해진다.
남편으로부터의 독립을 방해	이혼 절차 끝나 보면 아이들 어리지려 주고받는 경우 생길까봐 이려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합의이혼은 힘들 것 같아요.
남편 폭력의 피해자	아이가 그 동안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
제 2의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한 걱정	딸에 대한 애듯한 마음이 든다. 나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표 5〉 ‘시댁에 대한 경험’ 개념화

개념	경험
갈등의 원인이 됨	손위 시누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손위 동서가 3세가 적을 때 생활하면서 갈등이 있었다. 시누가 나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힘들었다. 결혼 후 시대 문제로 가끔 갈등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여자에 대한 비하가 심하며, 함께 살지 않지만 사소한 일에 부딪힌다. 맡며느리로서 위치가 전혀 인정이 되지 않으며 시어머니가 많다. 시대와 너무 가깝게 생활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시어머니가 하루에도 두 세 번씩 전화한다. 매일 간섭받는 느낌이다.
시어머니와 남편과의 밀착된 관계	시어머니와 남편이 밀착되어 있다. 시어머니와 아들 관계가 분리가 안 된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희생물 같다.

여 시어머니와 남편의 밀착된 관계에 대해서 표현하였다. 이상과 같이 대상자의 결혼 생활 경험에서 시댁에 대한 경험을 간등의 원인이 됨, 시어머니와 남편과의 밀착된 관계로 개념화하였다(표 5).

2. 쉼터생활에서의 경험

대상자들이 쉼터생활을 하면서 갖게 된 경험은 주로 내가 살고 싶은대로 살 수 있었고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다. 지금은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생활하였다고 표현하였으며, 마음이 편안했다, 나만의 시간이 많아서 좋았다, 많은 위안을 받았다고 표현하였다.

이상과 같이 쉼터 생활에서의 경험을 자유로움, 편안함, 자신만의 시간을 가짐, 위안 등으로 개념화하였다(표 6).

3. 집단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변화

대상자들이 쉼터에서 생활을 하면서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시킬 수 있었고 남편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넓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하였다. 또한 차분해지고 냉정해진 것 같았으며 눈물도 적어지고 미련도 없어진 상태라고 말하였다. 남편에 대한 태도로는 이제부터는 남편에게 물려 들어가지나 않을 것이며 남편에게 속내하고 싶고 헤어지고 싶은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여자도 뭔가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 같다. 마음의 정리가 된다, 또한 희망이 생긴다고 말하였다. 또한 나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겠다는 용기와 생기고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자신이 강해졌다고 느낄 수 있고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자 혼자 살기가 두렵고 사회적으로 여성의 혼자 사는 것이 힘들 것이며 여자들의 독립이 매우 어려운데 아빠 없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표현하였다.

이상과 같이 집단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변화로 갖게

〈표 6〉 '쉼터 생활의 경험' 개념화

개념	경험
자유로움	내가 살고 싶은대로 살 수 있고 자유로운 느낌이 든다. 항상 너무 남편에게 너무 구속된다느 느낌을 받았었다. 전에는 많이 위축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생활하였다.
편안함	이곳에서 편하게 쉬었다. 이곳에 온 것을 잘한 결정이라고 믿는다. 마음이 편안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짐	나만의 시간이 많아서 좋았다.
위안	이곳 생활에서 많은 위안을 받았다.

〈표 7〉 '집단 프로그램의 참여로 인한 변화' 개념화

개념	경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는 더 심각한 것 같다. 내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시킬 수 있었다. 남편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남편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다. 남편이 변했다기 보다는 나 자신이 변화한 것 같다. 즉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 같다. 남편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쉼터에 머물면서 부부간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 넓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차분해짐	최근 4년 동안 매우 위축되어 살아온 것 같다. 그동안 매우 짜증난 생활을 한 것 같다. 지금은 차분해졌다. 차분해지고 냉정해진 것 같다.

〈표 7〉 계속

개 념	경 험
차분해짐	남편에 대해 감정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예상하는 상황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침착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눈물도 적어지고 미련도 없어진 상태이다.
남편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함	남편과의 관계에 거리를 둘 것이다. 이제부터는 남편에게 절절 끌려 들어 가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법적인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남편에게서 독립하고 싶다. 지난주보다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 헤어지는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계속 남편과 산다면 나를 희생물로 만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다.
희망	이곳에 온 것을 잘한 결정이라고 믿는다. 여자도 뭔가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 같다. 나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정리에 화신이 된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당, 힘이 생기는 것 같다. 마음이 정리가 된다. 살아야 한다는 희망이 생긴다.
자기중심적인 삶에 대한 욕구	나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가 생긴다.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내가 중심이 되는 생활을 하고 싶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다.
강해짐	이 곳 생활에서 마음이 강해졌다. 남편과 별거를 원한다. 진작 결정 못한 것에 대해 후회스럽다. 여기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나 자신이 강해졌다.
대처방안 모색	앞으로의 결혼생활에 대한 계획을 설정했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나도 마음의 여유가 있도록 대처할 것이다.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긴다.
홀로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회원들 대부분이 집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여자들의 독립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절감한다. 내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인데 법적 수속을 밟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다. 자신이 없어진다. 혼자 살다가 몸이 아플 것 같기도 하다. 여자 혼자 살기가 너무 두려워요. 떨 걱정이 되요. 사회적으로 여성이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아빠 없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되는 경험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차분해짐, 남편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함, 희망, 자기중심적인 삶에 대한 욕구, 강해짐, 대처 방안 모색, 혼로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개념화하였다(표 7).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 폭력 피해여성들이 쉼터에서 제공되는 지지적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갖게 되는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결혼생활 경험, 쉼터생활 경험, 집단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변화에 따라 가정폭력 여성들의 경험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기간 및 대상자는 '여성의 쉼터' 시설에 1998년 9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임소한 여성들 15명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trauss & Corbin(1990)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의 분석 절차를 이용하여 개념화하였으며 그 결과 총 31개의 개념이 추출되었다.

결혼생활에서 자신에 대한 경험을 보면 그들은 마음의 상처, 분노, 위축됨 등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 결과

는 Houskamp와 Foy(1991)이 배맛는 여성들이 우울과 불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한바 있으며, Campbell, Kub, & Rose(1996)는 배맛는 여성들의 자존심이 매우 저하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또한 자녀에 대한 경험을 보면, 자녀들은 그들에 세 희망과 애정의 대상으로서 긍정적인 의미와 남편으로부터의 독립을 방해하고 남편 폭력의 피해자로서의 부정적인 의미 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땅의 경우 자신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자녀에 대한 연구를 한 Roberts와 Petretic-Jackson(1998)의 결과에서도 어머니가 배 맛는 장면을 목격한 아동의 75%가 나중에 문제행동을 나타내거나 사회적인 문제아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 폭력을 부부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들이 쉼터에서 생활을 하면서 갖게 된 경험을 보면 자유로움, 편안함, 위안을 느낌, 그리고 자신이 중심이 되는 시간을 가지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시간은 가정폭력 여성들에게 있어서 심리적인 상처로 부터의 회복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경험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여성들을 위한 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문요원이나 치료사들은 이러한 경험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집단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경험을 보면 이들은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자신이 강해졌다고 느꼈으며, 앞으로의 결혼생활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경험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차분해짐, 희망, 남편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함, 자기중심적인 삶을 원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가 좀 더 적극적이되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Hattendorf와 Tollerud(1997)가 위 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일종의 가족치료 형태로 폭력을 휘두른 배우자와 함께 참여하는 치료를 위기상황 치후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여성 스스로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자아를 확실하게 형성하기 위한 여성들만의 치료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은 여자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여자 혼자 사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고 표현하여 홀로 사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는 반면에 홀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그들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결정을 하도록 지원과 격려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배맛는 여성들이 폭력 피해자인 남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외적인 위험'을 제거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여성들이 내적인 마음의 상처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Farrell(1996)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폭력피해 여성들이 스스로 심리적인 상처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이 개인마다 시기적으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여성들에게 적절한 간호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지속적인 중재가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기관이나 보호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간호중재 기술이 더욱 다양하게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활용 및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결혼생활에서의 경험을 자신, 배우자, 자녀, 지역에 대한 경험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복 연구의 결과는 가정 폭력 피해 여성들을 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이 되리라 기대된다.
- 2) 쉼터생활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제시된 연구의 결과는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나 전문요원들에게 가정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제공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3) 집단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변화를 중심으로 제시된 연구의 결과는 가정 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치료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이 여성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연구가 필요하겠다.
- 4)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개념을 좀더 수정하고 정련화하여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여성들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밝힐 수 있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광일 (1985). 구타당하는 아내-50예의 정신의학적 연구. 정신건강연구, 현대 정신건강 연구소.
- 김승권, 조애조 (1998).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재엽 (1997). 한국 가정폭력 실태와 사회계층 변인과
의 관계요구. 사회복지학, 35(8), 133-155.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
에 관한 연구.
- 한영란 (1996). 구타당하는 아내의 경험에 대한 간호학적
탐색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Campbell, J. C., & Lewandowski, L. A. (1997). Mental and physical health effect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on women and children. The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0(2), 353-374.
- Campbell, J. C., Kub, J., & Rose, L. (1996). Depression in battered women. Journal of American Women's Medical Association, 51(3), 106-110.
- Campbell, J. C. (1989). A test of two explanatory models of women's responses to battering. Nursing Research, 38(1), 18-24.
- Curnow, S. A. M. (1997). The open window phase : Helpseeking and reality behaviors by battered women. Applied Nursing Research, 10(3), 128-135.
- Eby, K., Campbell, J., Sullivan, C., & Davidson, W. (1995). Health effects of experiences of sexual violence for women with abusive partner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6, 563-576.
- Farrell, M. L. (1996). Healing : A qualitative study of women recovering from abusive relationships with men.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32(3), 23-32.
- Gleason, W. J. (1993). Mental disorders in battered women : an empirical study. Violence and Victims, 8, 53-68.
- Hattendorf, J., & Tollerud, T. R. (1997). Domestic violence : Counseling strategies that minimize the impact of secondary victimization.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33(1), 14-23.
- Houskamp, B. M., & Foy, D. W. (1991). The assess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battered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 367-375.
- Roberts, A. R., & Petretic-Jackson (1998). Assessment measures for battered women, in edited by Burgess. Advanced Practice Nursing. Appleton & Lange, Stanford.

Strauss, M. A., & Corbin, J. (1990).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l : SAGE Publication

-Abstract-

Key concept : Experiences of the battering women,
Supportive group treatment program

Experiences of the Battering Women Participating in the Supportive Group Treatment Program

Kim, Sunah · Hyun, Myung S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battering women participating in the Supportive Group Treatment Program. Fifteen women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 Supportive Group program was provided for battering women in a shelter from September, 1998 to June, 1999.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 from Group program. The data were analyzed in the framework of the Grounded Theory Method as mapped out by Strauss and Corbin(1990) which is useful in exposing and understanding the experience of the battering women and in gaining a new perspective in this area. Thirty one concepts were conformed in the analysis.

Fifteen battering women have experienced trauma, anger, frustrating, withdrawal, escaping from husband, instability, and distrust through the marriage life. The subjects experienced freedom, security, and space for self in shelter life. Also changes from participating Supportive Group program were objective understanding in their situations, independence from husband, hope, strength, and seeking coping strategy. This study helps to understand women who suffer from domestic violence.

*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Ajou University